

전남광주 첫 조직개편...의회 통과 ‘산 넘어 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이번 정례회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전남광주특별시장의회의 등에 따르면 특별시는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당초 14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를 11일로 앞당겨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에 대한 집행부와

수정·보완 33건 중 17건 미반영
市, 후속인사 위해 11일 처리 요청
의회선 신중론 우세...의결 불투명
市 “확정 아냐...오늘 최종안 제출”

의회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시의회의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두고 집행부에 제시한 수정·보완 요구는 모두 33건이다.

집행부는 이 가운데 16건을 수용하고 17건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 배분과 조직 재배치, 핵심 지원 기능 일원화 등을 둘러싼 의회의 요구가 상당수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기후환경본부의 동부청사 이전을 비롯해 동부청사 1급 실장 직위 신설, 노동행정 기능의 주요 권역 분산 배치, 건축개발과의 무안청사 존치, 시민안전실의 무안청사 배치, 광주청사 체육국의 무안 이전 등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부청사 산업단지과 업무를 광역행정본부 기반시설과로 이관하는 방안과 도로정책과와 교통 부서를 동일실·국에 배치하는 제안도 채택되지 않

았다.

또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하기 위한 정원 확보와 기획·예산·조직·인사·감사 등 5대 핵심 지원기능 일원화 역시 집행부 안에 담기지 않았다.

농업·축산·수산을 총괄하는 2급 농수산실과 축산국 신설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동부청사 배치, 인구정책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무안청사 이관, 도시계획 기능의 무안청사 분산 배치 등은 의회의 결을 받아들였다.

조직 신설·확대 요구 가운데 일부는 규모나 형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해양바이오과를 새로 만드는 대신 관련 전담팀을 두기로 했으며, 탄소중립 대응과와 조선산업과 신설 요구는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

노동담당관을 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집행부가 의장과 운영위원에게 조직개편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다.

집행부가 주말 동안 추가 조정에 나선 만큼 현재 수용되지 않은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가 최종안에 새롭게 담길 가능성도 있다.

집행부는 7일 최종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33건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의장께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자료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최종안은 7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사별 기능 재배치와 조직 강화 등을 둘러싼 의회 요구가 상당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 내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송형곤 의장도 집행부가 요청한 일정 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7일 제출되는 최종 조직개편안에 기존 요구사항이 얼마나 추가로 담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지가 향후 심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이번 회기 내 처리된다고 약속할 수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며 “시간에 쫓겨 일단 처리한 뒤 추후 보완하자는 뉘앙스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안에 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 주말을 맞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전남광주 국제축제 열기 속으로

광주비엔날레·여수섬박람회
빅2 동시 개막 ‘대장정’ 돌입

전남광주에서 현대미술과 섬·해양의 가치와 미래를 조명하는 두 국제행사가 나란히 막을 올렸다.

광주에서는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과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여수에서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관람객을 맞으며 각각 72일과 6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4면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야외광장에서 개막행사를 열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후추니엔 예술총감독을 비롯해 한 스 올리호 오브리스트 서펜타인 갤러리 디렉터, 클라라 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 수석 큐레이터 등 국

내외 문화예술계 인사와 참여작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에서 김선익과 유한길이 음악공연을, 개막 공연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제작 지원한 권병준과 박찬경의 신작 ‘불림’이 공개됐다.

이번 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변화’와 ‘실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2개국 작가 43명(팀)이 참여해 원자와 분자의 미시적 세계부터 개인의 삶과 신체, 사회와 역사, 우주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동시대 예술로 풀어낸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1월15일까지 72일간 이어진다.

여수에서는 섬과 바다를 무대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가 개막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여수시, (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

열린무대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민형배 시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대통령 정부특별보좌관, 서영학 여수시장, 박수관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섬 주민, 국내외 관람객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섬의 흐름’ 식전행사와 ‘섬의 개방’ 공식행사, ‘섬의 서사’ 주제공연·세리머니, ‘섬의 확장’ 축하공연 등 4부로 진행됐다.

박람회 기간 주행사장에서는 섬의 현재 가치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시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캠핑과 트레킹, 섬 음식 체험 등 관람객이 섬에 머물며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11월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여수세계섬박람회장,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낮 최고 32도 ‘늦더위’...큰 일교차 주의

이번주 전남광주 지역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강진·고흥은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전남광주 대부분 지역의 최고기온은 29~31도 분포를 보이겠다. 반면 최저기온은 16~21도에 머물러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나타나겠다.

특히 보성(16~30도)·구례·화순(17~31도) 등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4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최고·최저기온은 28~32도, 17~21도, 9일 최고기온은 28~31도, 최저기온은 18~21도로 예상됐다. 10일 최고·최저기온 분포는 27~30도, 16~20도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겠다.

평일에 이어 주말·휴일 비 예보는 없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찬 공기

가 남하한 영향으로 낮 시간 높아진 지열을 밤 시간대에 빠르게 식히면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Today	
‘별집 제가’ 소방관 따라가보니	6면
이색 반려동물-미어캣	7면
‘짜릿한 손맛’ 갈치낚시 시즌	9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스포츠 불법 압표 판매·알선 행위
처벌 대폭 강화 기반 마련 '26.8.28. 관련법 시행

암표 없는 관람 문화, 공연·스포츠의
감동을 더 키우겠습니다.

사진출처: 뉴스1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